aplusfestival.co.kr

A+festival
2020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자라섬

09.23 - 09.25
WED-FRI

UNTACT FESTIVAL

주최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The Federation of Disability Culture & Art Associations of Korea

주관 2020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조직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2020_ Summer_Vol.2

AND
FDCA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The Federation of Disability Culture & Arts Associations of Korea



Contents

4p
두근두근2020
21대 국회에 묻습니다 1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_ 이종성

8p
두근두근2020
21대 국회에 묻습니다 2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_ 김예지

12p
Hot Issue
네 바퀴로 달리는 경복궁



16p
기분 좋은 만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_ 도종환



20p
장예총의 가족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 꿈틔움



27p
장예총이 하는 일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스페셜K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 미술대전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30p
장예총 문학
니들이 자기결정권을 알아?
김 미 선



AND

발행처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발행인
홍이석

편집인
고재오

편집실장
윤혜원

편집위원
엄정순, 김미선

디자인
디자인 달리

홈페이지
www.fdca.or.kr

· 본 소식지는 장예총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Cover Story

2019년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 장애인문화예술정보콘텐츠제작
시각장애인, 아동,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손으로 보는 우리 역사'

"네 바퀴로 달리는 경복궁"

현실에서는 Don't touch의 금기이지만 유물 트렁크 안에서는 Do touch이다. 누구라도 왕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스릴 있는 시간여행이 되지 않을까?

후원안내 장예총은 장애예술단체지원사업, 장애예술인교육사업, 장애예술단체정책지원사업, 장애예술인복지증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장애예술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진합니다.

후원계좌 **후원금통장** 하나은행 292-910008-79204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기부금통장 하나은행 390-910004-48405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우 07271)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7-5 이노플렉스 401호 / 전화 : 02-304-6211 / 팩스 : 02-304-6311 / 이메일 : jangyechong@fdca.or.kr

두근두근2020

21대 국회에 묻습니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_이종성



의원님께서는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장애예술계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앞장서 오셨고, 21대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의원님께서 장애예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부분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 먼저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장예총) 소식지 AND(Art & Disabillity)에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장예총)는 문화예술 관련 장애인단체들의 연합체로서 단체들의 교류 및 사업 지원과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되었으며, 2020년 새해를 맞아 문화와 예술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통합을 위해 소식지 AND를 창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식지 AND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이 활발히 정보를 교류하고 나아가서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가 높아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Q.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소감과 의원님께서 정치입문을 결심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평소 장애인 문제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26년 동안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일해오면서 장애인복지와 소외계층에 대해 겪은 경험과 생각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펼쳐내 보고자, 정치 일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문제는 우리 생활 모든 영역에서 장애정도와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장애계를 대표하여 정치에 입문한 만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당선이 되기 전과 후로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현장전문가로 활동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참여의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해 정부와 사회에 요구하는 역할에 주력해왔던 반면, 이제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 등을 따져 수렴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에 맞는 입법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법안을 발의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고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Q. 국회의원으로서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애예술가들의 예술권 확보 및 비장애 예술인과의 차별방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개선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인문화예술 분야는 제가 10년 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문화체육과장으로 재직할 때 소관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장애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이나 활동기반은 아직도 열악하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예술인의 예술권 확보 및 비장애예술인과의 차별방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통한 장애예술인들의 작품 전시 및 공연 등의 활성화 및 전시시설이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 창작물에 대해 일정 부분을 의무화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는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동 제도의 목적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증진을 통한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 기반 조성 지원도 있지만,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차별 방지 · 개선 · 금지라는 선언적 말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의 장 제공 등의 현실적 지원을 통해 장애예술인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최근 몇 년간의 장애예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높아지는 교육열에 비해 장애예술가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장애유형별 전문교육커리큘럼과 교수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동의하신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미래통합당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별도 지원의 필요성을 어느 정당보다 먼저 공감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제출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법률안 제6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및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및 교육커리큘럼, 교수법 마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전체를 볼 때 법률안이 목적, 기본이념, 정의, 실태조사 등 총 15개의 간략한 조항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장애예술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충분히 채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사항들을 꾸준히 챙겨서 장애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장애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장애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비장애 예술분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의 낮은 인식수준, 창작물에 대한 전시 · 공연 기회 부족 등으로 장애예술인들의 충분한 창작활동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5조에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예산 문제와 관련해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장애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문화예술단체들의 꼼꼼하고 적절한 사업계획 마련 노력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비장애 문화예술분야는 각 시 · 도 별 전담 부서는 물론 다양한 기능을 가진 국공립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문화예술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담 부서가 전무하고 예술정책과의 직원 2명이 국내 장애예술전반에 대한 행정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앞으로 장예총이 장애예술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을 때부터 장애인문화예술 전담부서에 대한 요구는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전담 부서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다행히도 장애인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음센터)를 설립하는 기초는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전담 부서나 기관은 결국 예산과 사업 규모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이 확대되고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전담 부서와 기관도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장예총은 우선적으로 마련된 법률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법 집행에 있어 행정력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행정인력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문화예술단체들은 각자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견인하고, 장애예술인들의 저변과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장예총을 중심으로 장애인문화예술단체들이 하나 된 목소리로 정부와 사회에 대한 욕구를 피력할 때, 우리 정치인들도 장애인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끝으로 장애예술의 미래 전망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장애인의 가능성을 발굴하여 전문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이 작품을 발표하여 예술적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온 장예총이 있었기에 장애예술이 원활히 성장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술창작품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관객 · 독자 등이 함께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예술적 재능을 표출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장애예술의 대중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장예총을 비롯한 단체들과 장애예술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나라 장애예술의 미래가 매우 희망적일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는 부분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장애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 묻습니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_김예지

"장예총이 지금과 같이 국내 장애 예술 전반에 대해 행정적 및 정책적 지원 단체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장애 예술발전을 위해 입법적, 정책적으로 힘쓰겠습니다."

Q. 먼저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장예총) 소식지 AND(Art & Disability)에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선 장예총 소식지 AND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애 예술인으로 장애인, 장애 예술인 등 소수집단을 대변하는 임무가 제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등원하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명제를 마음에 새기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소감과 의원님께서 정치입문을 결심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을 지지해주시고 소중한 한 표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엄격한 평가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범보수 진영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문화예술인으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과 인식 개선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노력만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권리 보장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에 한계를 느끼다,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제안을 받고 미래한국당 1호 인재로 영입됐습니다. 장애 당사자로 실효성 있고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Q. 당선되기 전과 후로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아직 큰 차이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후보자 시절, 당선인 시절, 그리고 지금의 국회의원 신분까지 정치는 제가 처음 도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고 하루하루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Q. 국회의원으로서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애예술가들의 예술권 확보 및 비장애 예술인과의 차별방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개선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법안과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3만2천여 명 장애예술인들의 숙원이었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동 법안은 장애인의 고용과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법률로써 많은 장애 예술인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심의과정에서 장애 예술인들의 재정지원을 위한 장애예술창작기금이 정부의 반대로 제외되는 바람에 장애와 예술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창작장려금이나 생활보조금의 지급은 기존 장애 수당 등과 중복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수당 · 장애인연금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회수당 제도이고, 창작금 지원 제도는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창작 활동비 성격임을 볼 때, 장애 수당과 창작장려금을 같은 성격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법률이 제정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에 대한 기금마련과 지원을 위한 입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Q. 최근 몇 년간의 장애예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높아지는 교육열에 비해 장애예술가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장애유형별 전문교육커리큘럼과 교수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동의하신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위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 예술인 육성기관 지정사업, 장애예술인학교 설립 등을 추진하여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를 토대로 더 많은 훌륭한 장애 예술인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장애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비장애 예술분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비장애 예술 분야 예산을 장애 예술 분야로 같은 파이에서 재분배하는 것보다는 예술 분야 전체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비장애 문화예술분야는 각 시 · 도 별 전담 부서는 물론 다양한 기능을 가진 국공립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문화예술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담 부서가 전무하고 예술정책과의 직원 2명이 국내 장애예술전반에 대한 행정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앞으로 장예총이 장애예술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장애 문화예술 분야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인력이라도 2명이 모든 업무를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예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예총이 지금과 같이 국내 장애 예술 전반에 대해 행정적 및 정책적 지원 단체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장애 예술발전을 위해 입법적, 정책적으로 힘쓰겠습니다.

Q. 끝으로 장애예술의 미래 전망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가가 비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원래도 열악했던 장애 예술 분야는 이번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우리나라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설 것이라 믿습니다. 장애 예술인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장애와 비장애가 공존하는 밝은 문화예술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두근두근2020 인터뷰는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국회의원 세 분에게 지면인터뷰를 요청해 이에 응해주신 두 분의 국회의원의 인터뷰를 실었음.

Hot Issue

2019년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시각장애인문화예술정보콘텐츠제작
시각장애인, 아동,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손으로 보는 우리 역사' 제작 이야기

네 바퀴로 달리는 경 복 궁



우리의 시대는 여러모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장애예술 분야도 그러하다. 이번 프로젝트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의 선상에서 이루어진 아주 유쾌하고 창의적인 협업이었다. 그래서 결과물도 새롭고 쓸모 있고 무엇보다 아름답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시각장애 대학생들과 예술가들의 콜라보로 주요 뮤지움들과 경복궁을 순례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기획자로서 나는 시각장애인들이 문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실제 역사공부에 도움이 되는 결과물은 어떤 것인지 궁금했다. 첫 질문에 대한 참여 대학생의 이야기는 우리의 협업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었다.

"나는 초등부터 맹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의 폭이 좁았어요. 대학교에서 비장애인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들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생활에서 같이 소비하거나 활동하는 것들은 대부분 시각적이어서 저는 그런 콘텐츠들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내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찾거나, 기존 콘텐츠의 룰을 바꿔서 친구들과 어울려야 했어요. 맹학교 친구들 중에 비장애인 사회에 섞이지 못하고 낙오되는 걸 많이 봤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장애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기회는 실제로 많지 않아요. 상대방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려면 문화 교류를 해야 되요. 쉽게 말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놀아야 해요. 이제는 복지나 경제 수준이 나아지고 있으니 장애인들도 노동외의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장애인들도 돈을 쓸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놀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나아가 인식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예요."

젊은 세대는 문화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필수임을 느끼고 필요로 하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다녔던 문화시설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견들을 모으고 그들의 체험 태도를 기록하였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모두 국립기관이고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는 시설들이었다. 그럼에도 아쉬웠던 것은 그 노력이 잘 안 보이고 업그레이드가 안되어서 실제 사용자인 시각장애인들의 불만은 분노로 변해갔다. "말뿐이지 다 형식에 그쳤고 우리가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편 시각적인 세팅이 중요한 문화시설에서는 '장애인의 만족도를 어느 수준까지 충족시켜야 할까?' 답답해한다.





제공자인 문화시설과 사용자인 장애인들 사이에서 상대의 입장을 각각의 언어로 전달해주는 해설자 역할의 필요성이 느껴졌다.

나는 기획자로서 이 두 가지의 배움을 이 프로젝트에서 실현하고자 했다. 이동성이 있어 다양한 계층이 만지며 배우는 경복궁은 어떤 모습일까?

네 바퀴가 달린 트렁크를 만들었다. 그 안에 경복궁에 있는 왕의 상징물들을 넣었다. 현실에서는 Don't touch의 금기이지만 트렁크 안에서는 Do touch 이다. 3D 프린팅 기술이 아닌 작가들의 손기술로 만든 각각의 유물의 재질은 원본에 가까웠다. 손톱보다 작아진 근정전의 기와와 잡상들을 일일이 도자기로 구워냈고 왕의 집무실에 있는 일월오봉도는 화면의 높낮이의 차이를 두어 그림의 디테일이 느껴진다. 범접하지 못한 왕의 길인 답도와 왕의 도장도 감히 만져볼 수 있다. 여기서는 432,703㎡ 면적의 조선의 궁도 한 뼘 손 안에 들어온다. 트렁크 안에서는 한글, 점자, 영어, 오디오북 등 여러 언어가 경복궁을 설명해준다. 역사 공부를 글로만 배울 수밖에 없는, 반 토막 정보 속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역사를 만지며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된 '손으로 보는 우리 역사 프로젝트'! 아티스트들과 시각장애인들의 협업으로 10개월간 진행하여 완성하였다.

이제 여기저기 네 바퀴로 달려가 보여주고 싶다. 이 프로젝트는 시각장애인, 아동,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콘텐츠 제작이다. 누구라도 왕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스릴 있는 시간여행이 되지 않을까. 코로나19로 문화교육행사들이 적어졌지만 국내외 전시, 교육 프로그램에서 네 바퀴 유물 트렁크의 쓰임이 많아지길, 그래서 닳은 바퀴를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기다려본다.
무엇보다 본 프로젝트를 믿고 맡겨주신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엄정순 _ 아티스트, (사)우리들의 눈 디렉터



景福宮

기분 좋은 만남



문화체육관광 도종환 위원장과의 기분 좋은 만남

공존과 교류를 위해 ‘동행’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장님은 제50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분야의 제도 개선에 앞장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Q. 먼저 위원장님께서 문화예술 전문가로서 제도개선 및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부분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장애예술단체 및 장애예술가들의 길잡이가 될 장애문화예술 소식지 “AND”에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입니다.

어둠 없이는 별이 홀로 빛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네가 있어 내가 있는 삶, 너로 인해 내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지요. 저도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 함께 살 수 있는 세상, 예술을 통해 장애를 넘어서는 세상, 다름에 대해 인정하고 다양성이 인정받는 사회를 꿈꿉니다. 장애예술인들과 비장애 예술인들의 공존과 교류를 위해 늘 애 써 오신 장애문화예술 소식지 “AND”에 감사드리며, 저도 그 길에 ‘동행’ 하겠습니다.

Q. 위원장님께서 처음 문화예술계에 오셨을 때와 지금 문화예술계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2년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와서 주로 문화 분야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 기조는 무너지고,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계가 퇴행과 파행을 거듭하는 아픈 시간들을 보냈지요. 그 이후 〈예술인 권리보장법〉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등 법제도적인 보완이 진행됐고요. 점진적으로 바꿔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정부의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장애인들의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동일한 수준에서 이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찾아가는 문화교육, 장애인문화예술축제를 포함한 각종 행사 지원 등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산 자체도 적지만, 일회성이나 전시성 행사가 많아서 현장의 장애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 창작하시는 분들 외에 향유하시는 분들이 문화생활을 계단이나 턱 걱정 없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현재 장애인 예술분야의 대표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장예총)으로 많은 예술단체와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과 기금을 포함한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대안이나 정책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예술 공연장의 필요성은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2018), 문화비전2030(2018)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접근성이 보장된 공연장은 극소수이고, 창작자로서 무대 접근이나 조정실 등에 대한 접근성 갖춘 공연장도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장애 · 비장애 구별 없이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창작자와 향유자 모두에게 접근성이 보장되는 공간, 장애예술 뿐 아니라 다양성 가치 포괄하고 장애–비장애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위원장님께서는 문화예술 뿐 만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이나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법안 발의를 해오셨고, 지난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김영주 의원 등과 함께 공동 발의하셨고 그 법안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올해 5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예술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부분의 문화예술 사업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문화예술단체를 위한 법적 기반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예총에서는 장애예술단체를 위한 장애인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을 개 · 제정하려하는데 법을 잘 모르는 장애예술단체에게 도종환 위원장님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통과된 〈장애예술인지원법(약칭)〉에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창작활동 지원, 참여확대 지원, 고용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장애예술인 접근성 제고 지원,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 실태조사 비용 지원 등을 위해 국비 70억원 가량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밖에도 〈장애예술인지원법〉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이 통과되기까지 8년이 걸렸거든요.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향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보완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정책적으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Q.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는 비장애인들 행사만큼 많지는 않지만 각각의 주제를 갖고 다양한 곳에서 열립니다. 장애인문화예술축제를 비롯해서 이런 행사에 초청을 받으신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장관 취임 후 얼마 안 되었을 때, 대학로에서 장애인 예술극단 다빈나오의 소리극 '옥이'를 관람한 적이 있어요. 시각장애인 배우가 동선을 숙지해 무대 위를 이동하며 대사하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던 기억이 지금도 가슴에 깊이 남아 있는데요. 기회가 닿는 대로 다양한 장애인 문화예술 행사를 직접 보고, 느끼고, 참여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Q.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같은 전문교육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도종환 위원장님께 장애인 예술교육 같은 실질적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설립이나 세부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절반이 필요하다고 답해주실 만큼 교육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요. 전문교육인력부족, 교육기관의 부재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창작에 대한 만족보다도 창작을 위한 여건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교육에 대한 욕구 등이 큰 것이지요.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및 창작 기회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이 가능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장애인의 예술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장기적인 정책 계획 속에 담기고,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Q. 끝으로 코로나19로 고생하고 계신 모든 장애예술가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쓴 시 중에 '담쟁이'라는 시가 있어요. 벽이라고 하는 물도 없고 흙도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담쟁이는 그 운명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 절망적인 환경을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꾸어 놓잖아요. 절망적인 환경을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꾸면서 자기 인생의 벽을 넘는 담쟁이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아름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늘 응원하겠습니다.



장예총의 가족

FDCA's Family

장예총 회원단체를 소개합니다.
장예총은 전국의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연합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입니다.
우리 연합회는 예술가를 꿈꾸는 장애인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전문예술인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 릴레이로 소개될 단체는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와 '꿈틔움'입니다.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 The Federation of Disability Culture & Arts Associations of Korea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사)한국장애인미술협회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사)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사)빛소리친구들
(사)한국장애인공연예술단	(사)한국장애인서예협회	(사)꿈틔움
(사)우리들의 눈		(사)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ulture Exchange for Disabled

먼저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소식지 AND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중앙회 이사장 최공열 입니다. 장애인문화예술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사)장애총 소식지 'AND'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의 설립목적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본회는 민간단체로서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국내 및 국제간의 교류를 주도하여 각종 장애인 문화 사업을 조성하고, 그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여 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장애인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현재 전국 시도에 64개 광역, 시군구 지역협회와 4개 지역의 해외협회 그리고 전국 20여 곳에 찾아가는 장애인문화학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 장애인예술단과의 교류도 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는 주요사업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인장애인문화예술학교는

예술적재능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국내외 공연 및 공모전 활동기회를 제공하여 각 프로그램별 100여명의 전문교육강사진들과 함께 문화예술역량강화와 전국 20여 문화학교의 600명이 넘는 장애인예술가를 꿈꾸는 학생들로서 문화예술교육과 사회적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장애인합창대회 사업은

세계장애인의 날(매해 12월 3일)을 기념하여 장애인 합창의 예술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장애인 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친화력 증대를 도모하여, 전국의 장애인 합창단들을 발굴하고, 사회적 인지도 재고 및 참여의식을 높이며, 전국장애인이 하나되어 정보를 교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본대회의 대상으로 대통령상으로 승격시켰으며 국무총리상과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여함으로 합창대회의 위상과 권위를 높였습니다.



역량강화 캠프(국내장애인문화엑스포)는

문화의 장벽을 넘어 긍정적인 장애극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장애인에게 문화와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문화교류를 확대하며, 긍정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제주도, 백령도, 인천, 속초, 평창, 울릉도 · 독도 등 매년 8월 전국을 순회하며 국내문화엑스포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는 목포 국내장애인문화엑스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 EXPO는

장애예술가들에게 해외공연의 기회를 통해 자부심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무대현장 경험을 쌓아 전문 예술인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양국 장애인 문화교류활성화를 높이고, 국내 · 외 장애예술인 문화교류를 통한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92년부터 중국, 몽골,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 미국, 베트남, 태국 등 해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장애인문화예술교류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이 다함께 예술로 공감하는 장을 마련하여 장애인예술가들의 성장을 응원하고 예술성과 비전을 나누고자하며,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의 1년간의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한해의 교육의 결과물을 재설정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문화학교 학생과 관계자의 공헌자와 우수학교 학생을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사기진작을 위해 매해 12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올해 장애인 문화예술축제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양악과 국악 장르가 다름을 "마주하고" 경계를 뛰어넘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무대입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오케스트라 콜라보레이션 무대, 발달장애인 학생들과 비장애인 강사 및 전문연주자들로 구성된 금관앙상블 무대, 발달장애오케스트라와 국악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축제를 통해 장애인연주자의 다채롭고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여 장애인 인식개선에 기여 함은 물론 장애인 문화예술교류의 장을 활성화하여 교류를 도모함으로 장애문화예술 컨텐츠 브랜드가 개발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과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동의하신다면 장애인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과 개선해야할 부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누려야 할 문화향유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계층의 특권처럼 느껴졌던 문화예술의 공연물과 시설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고 접근성과 편의시설들이 확충되고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에게는 아직도 시설적 미흡이 크나큰 어려움으로 몸에 와 닿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공연장에 들어서는 곳곳마다 계단이 눈에 보이고,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되어져 있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하 이런 작은 배려부터가 배리어프리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를 동영상으로 대처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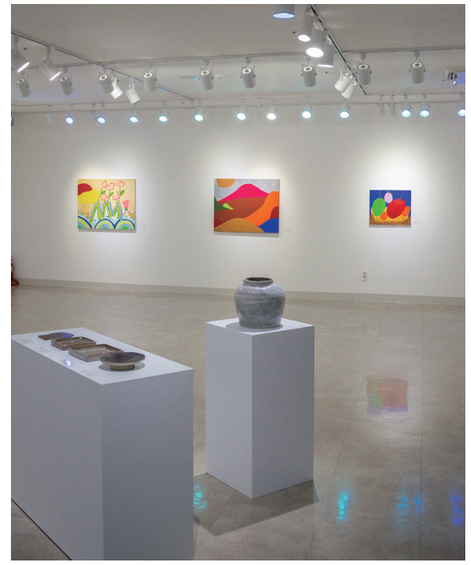
온택트 코로나로 인해 사회 각계각층의 변화와 개개인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하루속히 우리 생활 속에서 종식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만약 그때까지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많은 관객들과 함께 하는 합창대회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업들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합창대회나 교류대회, 엑스포 같이 많은 인원이 아닌 소규모 인원으로 함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통해 합창대회를 알리고 문화예술을 함께할 수 있도록 대비계획 중입니다. 또한 역량강화 EXPO 및 국제교류문화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준수하며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포스트 코로나가 종식되리라는 가정하에 합창제 사업계획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8년만에 제정이 되었는데, 기대되는 변화가 있다면?

장애예술인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의 창작과 발표의 기회 부족, 창작과 연습공간의 부제 및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문화예술활동을 영위 하는데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호소를 해왔습니다. 이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반을 마련한 계기라 생각합니다. "장애예술인 진흥기금 설치 조항"이 빠져 미흡한 점은 있지만 장애인고용촉진과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여러 부분에서 점진적인 변화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종합시책 등이 마련되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활동제한을 받고 있는 모든 장애예술인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장애예술인들은 더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어려움에도 단합된 의지와 긍정적인 대한민국의 힘과 굳은 의지로 하나되어 다같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장애예술인들도 당당하고 왕성한 창작예술의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Pink Heart & Dream
꿈틔움

먼저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소식지 AND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예술인들과 함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단법인 꿈틔움입니다.

꿈틔움의 설립목적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다양한 사회자원 및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장애인 예술가들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자신의 재능 발굴 및 역량증진 방법을 모색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추구와 자립생활이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장애인예술인들과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을 소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술공모전인데 "꿈을 날다" 공모전과 "꿈을 그리다" 공모전이 있습니다. "꿈을 날다" 공모전은 올해로 9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만 1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아마추어 미술가를 발굴하는 공모전입니다. 이에 반해 "꿈을 그리다" 공모전은 올해로 6회를 맞이하며 만 16세 이상 모든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데, 예술가로 이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모전입니다. 예술작품에 가치를 따지기 위한 공모전이 아닌 작가들의 등단을 위한 문의 역할과 더 많은 대중과 가까이 하기 위한 접점으로 여겨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사업은 디자인 개발과 모델 양성사업입니다. 꿈틔움에서는 다이버시티 컬렉션부터 시작하여 현재에는 "인클루시브 패션쇼 프로젝트"라는 디자인개발과 모델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은 결국 장애인 자신도 찾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면서 오히려 모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대중에게 더욱 쉽게 다가가기 위해 인클루시브 디자인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모델 양성은 미적 기준을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모델이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 읽어주는 우리 선생님"이라는 미술교육사업으로 장애인 작가들의 다양한 형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미술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유 · 아동 및 중고등학생들에게 미술 강사로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화구연을 주제로 장애인 작가들이 스토리를 짜서 동화와 삽화를 제작하는 작업을 통해 미술교육 교구를 직접 개발하여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직접 미술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에서 진행하는 'A+ Festival'에 참가하여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다양한 미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 올해 9월에 진행되는 축제에 참여하여 코로나 속에서도 좋은 추억과 경험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다이버시티 컬렉션을 통해 장애인 패션개발에 기여하고 있는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있나요?

다이버시티 컬렉션은 저희 꿈틔움이 디자인개발 사업을 시작했던 초기 사업명으로 패션에 다양성이 있음을 알리고자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토대가 되어 현재에는 인클루시브 디자인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유니버설 디자인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은데요. 유니버설 디자인의 경우 특정 극단적 욕구를 가진 이의 특정부분을 극도로 강조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봐도 장애인 화장실, 누가 봐도 장애인이 활용하는 편의시설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오히려 극단적인 욕구까지 모두 포괄하면서 모든 이가 쓰고 싶은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를 두드러지게 드러내면서 편의성만을 생각한 의상은 결국 아무도 찾지 않게 됩니다. 모든 이가 편하게 입으면서도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패션을 통해 패션계와 문화계의 콘텐츠 확장으로 연결하며 추후 차세대 의상을 선도하고 장애인 의복의 이해 확보를 통한 파생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복 선택권에 대해 대중도 함께 인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과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동의하신다면 장애인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과 개선해야할 부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나라의 각종 문화예술 공간은 이미 오래된 건축물이거나 동네에 자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사동의 갤러리는 대부분 2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지체장애인의 경우 이용이 어렵습니다. 또 공연이나 행사장의 경우 지하에 위치한 경우도 많은데 장애인 화장실은 고사하고 계단이나 단차가 많은 유형의 건물이 많아 장소를 선정할 때 제약이 많습니다. 이전에 평창동의 가나아트센터에서 전시회와 시상식을 진행하였었는데 사설갤러리로서는 5대 갤러리에 드는 대형 행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을 대여하여 주차장에 설치하고 내부에도 별도의 경사로를 곳곳에 설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갤러리에서는 이전에는 한 번도 장애인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행사를 진행하면서 진심으로 납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주차장, 화장실, 휠체어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등등 문화예술 공간이 모든 이에게 열리기까지는 정말 난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장애예술가들이 어려운 도전을 하면서도 이러한 점들도 부각

하여 주시고 비장애인이 이해하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가야 하는 부분도 문화예술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8년 만에 제정이 되었는데, 기대되는 변화가 있다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이 개선됨으로써 지금보다 더 많은 창작활동을 보여 줄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가 포함되면서 장애예술인이 어느 정도 어떠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이 향후 정책반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복지관이나 다양한 유관단체서 장애예술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에 앞서 기초적인 욕구파악과 수요 조사가 이뤄져야 보다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창작활동의 확대, 시설 접근성, 고용지원, 단체 지원, 전담 기관 지정 등 다양한 지원책과 제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애예술인의 활동이 더욱더 전문성을 가지고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활동제한을 받고 있는 모든 장애예술인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가는 곳이 제한되고 늘 했던 일들도 더 이상 예전처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이, 세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애예술인의 활동도 제약을 많이 받고 있지만 늘 힘든 상황에서도 위로 받는 것보다 대중에게 예술로 오히려 더 큰 위로를 주었던 것은 장애인 당사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해 왔던 대로 그러나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계의 콘텐츠 확장으로 연결하며 추후 차세대 의상을 선도하고 장애인 의복의 이해 확보를 통한 파생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복 선택권에 대해 대중도 함께 인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하는 일

The Federation of Disability Culture & Arts Associations of Korea



대한민국 장애인 예술경연대회

Special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스페셜K’는 장애인의 공연예술 경연을 통한 예술적 가치 극대화와 비장애인과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 공유, 신진 장애예술인의 발굴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8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국악, 클래식, 실용음악, 무용, 연극 · 뮤지컬, 총 5개의 경연분야로 이루어진 ‘스페셜K’는 경연대회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능동적인 예술활동과 잠재역량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장애예술인으로 육성하여 전문 장애예술인으로의 능동적인 예술 활동 및 사회적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는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장애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 효과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예술의 사회적 이슈 생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장애문화예술 생태계 기반 구축과 직업 예술인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00명이 넘는 참가자들과 함께해 온 ‘스페셜K’는 장애유형과 예술장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축 및 확대하여 신진 장애예술인 발굴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장애총이 하는일

The Federation of Disability Culture & Arts Associations of Korea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미술대전

1991년 곰두리 문학상 · 미술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 미술대전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장애인 문학 및 미술 공모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학과 미술 분야를 세분화하여 전문예술가로써의 등용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도모해왔습니다. 문학상은 운문부(시, 동시)와 산문부(소설, 수필, 동화)로 나뉘며, 미술대전은 한국화, 서양화, 공예, 조각, 서예 및 문인화, 전각, 서각으로 세분화하여 모집,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장애인문학상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은 장애 문학계에서 그들의 잠재 능력을 끌어올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기여하며 장애문인들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문학 · 미술과 타 장르와의 공동작업 확대, 장애 · 비장애예술가 간 문화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 컨텐츠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하여 지난 29년 간 수많은 문학과 미술분야의 예술인들을 발굴해 왔습니다. 장예총은 앞으로도 수많은 장애예술인들작활동 참여유도로 장애문학 · 미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힘쓸것입니다. 장애인문학상 · 미술대전을 거쳐간 수많은 작가들이 우리나라 장애예술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장애총이 하는일

The Federation of Disability Culture & Arts Associations of Korea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A+ Festival

장애인문화예술축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국내 최대 규모의 축제입니다. 문화예술을 매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이 문화예술 향유와 창작활동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2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축제는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선보여 장애예술의 가치를 재고하고,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한 공감대가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축제의 공식 명칭은 'A^{+} Festival'입니다. A^{+}는 장애예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Ability, 열린 접근성의 Accessibility, 활기찬 역동성의 Activity와 예술의 Art, 이를 통해 모두 함께하고자 하는 All together의 앞 글자 A를 뜻하는 것으로, 장애인문화예술축제의 지향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장예총은 장애인문화예술축제가 장애인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장애와 비장애 구분없이 모두가 예술을 통해 함께 즐기는 장이 되도록 일반 시민들이 단순히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 함께 축제를 만들어나가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 소통과 화합의 축제로 장애인문화예술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니들이 자기결정권을 알아?

– 김 미 선 –

닷새 만에 집으로 돌아온 날.

약속대로 활동보조인 K여사가 왔다.
현관에서 화장실까지 남겨두고 양쪽에 둘러쳤던 비닐 가림 막을 뜯어낸 집안은 폐허처럼 부옇게 보였다. 어쩔 줄 모르고 망연히 서 있는 나를 K여사가 밖으로 밀어내고 재빠르게 청소를 시작했다. 먼저 청소기를 쓩쓩 돌리고 걸레로, 물티슈까지 한껏 풀어 식탁이니 거실이니 가구의 먼지들을 닦아냈다. 새로 단장해서 모델 하우스처럼 번쩍거리는 화장실 타일바닥까지 물을 부어 씻어내는데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주방 그릇 씻어놓았고요. 창틀도 닦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날랜 K여사라고 해도 그러기까지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주방 선반에 있던 그릇을 들어 올리자 먼지 자국이 그대로 드러났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밖으로 내놓는다고 했지만 다 못 나간 것들이었다. 마지막까지 쓰던 그릇은 급하게 행주로 덮어두기도 했다.

그렇게 3년 동안 집안일을 도와주던 K여사가 떠나갔다. 이때만 해도 다음 사람을 구하기가 난항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화장실 공사 일정이 잡히자마자 K여사가 그만두겠다고 알려왔을 때에는 얄미운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사정 따라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쿨하게 동의했다.

–그런데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걱정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무실 출근을 안 하니까요.

걱정을 해올 때에도 나는 관대하게 웃어 넘겼다. 십 년 넘게 친구처럼 지내오던 지인이 활동보조사 자격을 따고 우리 집 일을 했으면 하기도 했다. 하지만 허드레 집안일을 부탁하기도 그렇거니와 숟가락 하나 속옷 한 장까지 공개하기에는 오히려 편편치 않은 점이 있었다.

또 한 사람 P는 K여사가 오기 전 우리 집 일을 5년 넘게 봐주던 이였다. 다른 집 활보까지 겸하고 있던 그녀는 1인당 월 22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새로 생긴 규정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다가 일 년 전부터 그쪽 시간이 줄어 다시 왔으면 하고 몇 차례나 에둘러서 뜻을 전해왔다. 워낙 가족처럼 된 사이라 안타까웠지만 K여사를 내보낼 수 없이 미안하던 차에 이번에 아예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P는 꼼꼼하지는 않아도 덩치가 크고 시원시원했다. 또 자가운전자여서 바깥일을 부탁하기에도 좋았다.

그런데 P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다.

–센터에서 우리는 안 된대요.

이유는 활보와 이용자 둘이 짝짜꿍해서 맺어진 사이이기 때문이라는 것.

아니, 그게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우리끼리 처음 만난 사이도 아니고, 3년 전에 센터에서 안 된다고 해서 헤어졌다가 다시 조건이 맞아 만났는데 셀프 매치니 뭐니 하면서 안 된다니, 나는 담당자 이름을 물어 당장 해결사로 나섰다.

활동보조인의 원래 취지가 무엇인가.

장애인 스스로 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무엇보다 존중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던가. 이때까지만 해도 씩씩하게 통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였다. 점잖게 취지를 설명하는 동안은 묵묵부답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흥분하여 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안 됩니다를 반복했다.

-그게 규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정(市政) 감사에 걸리게 됩니다.

앵무새처럼 되뇌는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콘크리트 벽이었다.

센터가 소속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위원이기도 했던 나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으나 속을 주저앉혔다. 이후 관장이 몇 차례 바뀐 후이기도 했고 사실은 너무 피곤했던 것이다. 공사를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완전 그로기 상태가 되어 있었다.
막상 화장실을 열어보니 예상보다도 누수가 훨씬 더 심해서 천정과 벽이 썩어 있었다. 그것부터 뜯어내고 기본 틀을 정비해야 할 텐데 업자는 여전히 괜찮다, 걱정을 마시라, 는 말이었다. 그러고는 일반적인 인테리어 방식으로 석고 패널로 가리고 그 위에 타일을 잽싸게 입혀 나갔다.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그들은 중단하는 법을 몰랐다. 일이 이리 되기까지의 원인 제공자였던 위층에도 올라가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했으나 전문가한테 맡겼으니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는 게 유일한 답변이었다. 그저 나만 노파심에 겨운 노인네가 되어 있었다. 이런 처지에 또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여력이 남아 있지 않았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급락한 운(運)이 지금의 상태로 밀어붙이는 듯한 자괴감에 빠져있었던 것이다.

이틀이 지나 다른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다. 언제나처럼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 그에게 이쪽 이름을 말하자 갑자기 어조가 뻣뻣해졌다.

-왜 그러신가요? 이용자님

극히 사무적인 호칭에 불쾌한 마음이 버럭 일어났다. 아무래도 요즘 신경이 너무 곤두서 있는 탓이다. 오늘은 이 문제를 부드럽게 풀어 매듭을 지어야 한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간에 부정 수급 사례가 있다는 걸 나도 들어 알고 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란 활보한테는 최소한일 뿐인데 그럴 경황이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P선생은 우리 집에 오래 해왔던 분으로 셀프 매치라고 막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잘못될 소지가 있으면 관리를 해야 할 일이지, 예비 범죄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어떻게든지 풀어서 설득을 해보려고 땀까지 삐질삐질 흘리는 동안 그는 딱딱하게 듣고만 있더니 마지막에 그랬다.

-사정은 잘 알겠습니다.

(뭔 사정을 알았다는 거야? 내 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일을 똑바로 하라고!)

-하지만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아악…….)

-그러심 사무실에서 협의를 해봐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청소 말고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다. 그러면서 엉덩이를 바닥에 뭉개고 있을 뿐이었다. 화장실과 연결된 작은방은 천정과 벽이 뜯겨진 채 곰팡이 제거 약을 뿌린 자국에 따라 얼룩덜룩 난장판이었다. 벽은 손에 닿는 대로 아직도 공사 먼지가 묻어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몸이 화장실의 바뀐 구조에 적응을 못해내고 있었다.

겨우 저녁 한 술을 뜨고 있는데 P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오늘 센터에서 새 이용자를 소개시켜 주어 다녀왔다는 것. 기다리는 우리 집은 어찌 되냐고 물었더니 다른 사람을 연결시킬 것이니 걱정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요…….

P가 계속했다.

-오늘 만난 이용자도 일 할 활동보조사가 없다고 몇 달 동안 매칭을 안 시켜 드렸대요. 휠체어 타신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 어휴, 집이 온통 쓰레기지 뭐예요. 근데 나한테는 계속 이용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당탕탕
출출- 출출출--

윗집 변기에서 물 내려 보내는 소리가 벼락처럼 또 울리기 시작한다. 머리가 후끈 달아오르더니 빠개지듯이 아파왔다. 그리고 팔과 허리에서 힘이 스르르 풀려 나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P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떨어지는 머리를 식탁에 박으며 생각했다.
그래, 일단 한숨 자고 일어나자.
마침 눈꺼풀도 저절로 내려와 떨리는 나를 다정하게 덮어주었다.
너희들에게 총이 있는 것처럼 나한테는 한 자루의 펜이 장착되어 있으니까.



김미선
계간 『동서문학』 신인상으로 등단(1994) / 제1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입상(1991) /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문학도서 선정(2013, 『눈이 내리네 』) / 구상솟대문학상 수상 (2018) / 스마트소설박인성문학상 우수상 수상 (2019) / 시집 『너도꽃나무』 소설집 『눈이 내리네 』 / 『버스드라이버』 『소수자들의 삶과 문학』 공저. / 에세이 『이 여자가 사는 세상』 등
e-mail : msmoz@naver.com